



이 세상 모든 루돌프에게

| 김민성

주요 등장 인물 소개

루돌프<극의 주인공. 산타하우스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암컷 순록이다. 올해의 우수사원상을 받은 인재지만 아직까지 선두에서 썰매를 끌어보지 못 했다.>, **부돌프**<북극 본사에서 온 수컷 순록으로 한국 지사로 온 뒤 산타의 총애를 받는다. 처자식을 북극에 둔 기러기 아빠.>, **마녀사슴**<루돌프의 사수였으며 과거 산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순록이었다.>, **산타**<산타하우스 한국 지사의 산타로 극 중에서 언급될 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시놉시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산타하우스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루돌프는 작년 올해의 우수사원상을 수상하고 사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재이다.

배송지원부 소속인 루돌프는 모든 순록들의 꿈인 썰매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며 썰매를 끄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한 번도 선두에서 썰매를 끌어보지 못 했다.

산타하우스가 가장 바빠지는 연말을 앞두고 수컷 순록인 부돌프가 들어온다. 부돌프는 북극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신입으로 산타의 총애를 받는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부돌프의 사수로서 일을 가르치던 루돌프는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자신은 선두에서 썰매를 끌지 못할 수 있으며 부돌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확정이란 소문을 듣는다.

북극에서 온 부돌프보다 한국의 물정을 잘 알고 있는 루돌프는 이를 부당하게 여기지만 산타의 눈 밖에 나게 될까봐 솔직하게 불만과 요구를 얘기하지 못 한다.

홀로 속앓이를 하던 루돌프는 자신의 사수였던 마녀사슴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마녀사슴 선배의 과거 이야기와 위로를 들은 루돌프는 결의를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선두로 발탁되지 못 한다. 크리스마스이브 부돌프의 실수로 누락된 선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루돌프는 마녀사슴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선물을 무사히 전달하며 극은 마무리된다.

루돌프는 공정하지 못한 인사관리와 남성 위주 카르텔을 이겨내고 썰매를 이끌 수 있을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기쁨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루돌프들에게 공정을.

이 세상 모든 루돌프에게

S#1. 산타하우스 외관 (낮)

잔잔한 캐롤이 울려 퍼지며 FI.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 외관이 보인다. 보통 사무실 건물처럼 간판이 걸려있다. “Santa's house in Korea”

S#2. 회의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 캄캄한 회의실 F.S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통해 영상이 흘러나온다. “산타하우스 신입직원 교육 영상 (배송지원)”라는 글자가 보인다.

S#3. 사무실 내부

빨간 코와 사슴뿔 분장을 하고 있는 루돌프 등장한다. (극 중 모든 순록들은 빨간 코를 제외한 나머지 루돌프와 동일한 분장을 하고 등장합니다.)

루돌프 : 반갑습니다. 저는 산타하우스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루돌프입니다. 산타하우스의 일원이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돌아다니며 사무실 내부를 소개하는 루돌프. 사무실 문을 열자 뾰족한 귀에 초록색 의상을 입고 열심히 선물을 포장하는 엘프들이 보인다. (극 중 모든 엘프들은 위 설명과 동일한 분장을 하고 등장합니다.)

루돌프 : 보이시나요? 이곳은 선물포장부입니다. 엘프들이 선물제작부에서 받아온 선물을 포장하는 곳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 줄 선물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는 곳이죠.

계속해서 사무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루돌프. 벽 앞에 걸린 자신의 사진이 걸린 액자 앞에 멈춰 선다. “employee of the year”, “올해의 우수사원”이라고 적혀 있다.

루돌프 : 저희는 연말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소중한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죠. 캐롤을 들을 여유조차 없답니다. 비록 몸은 고되지만 저흰 일에 자부심이 느끼고 있어요.

다음 문을 향해 걸어가는 루돌프. “배송지원부”라 적혀있는 문패 C.U

루돌프 : 이곳은 배송지원부입니다. 다른 부서들 대부분 엘프들이 근무하고 있어요.여긴 오직 순록일곱 마리만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저 또한 배송지원부에서 일하고 있죠. 모든 순록들이 그렇듯 저 또한 같은 꿈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마스에 썰매를 끄는 순록 중에서 가장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같은 순록으로서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S#4. 배송지원부 사무실 내부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눈에 띄는 걸 제외하면 컴퓨터와 책상으로 채워진 평범한 회사 사무실과 별다를 바 없다. 문 앞에 놓인 화이트보드 옆에 서 있는 루돌프. 루돌프를 제외한 순록 다섯 마리는 각자 자리에 앉아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부돌프.

부돌프 : 안녕하세요. 북극 본사에서 온 부돌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돌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수를 치는 루돌프. 다른 순록들은 심드렁하다. 타자기 소리(E) 타자기 소리 점점 줄어든다.

S#5. 탕비실

어디에서 볼 법한 평범한 회사 탕비실에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가득하다. 테이블에 앉아 냉장고에서 꺼낸 슈틀렌 케이크를 접시 위에 올려놓는 루돌프. 부돌프가 탕비실로 들어온다.

부돌프 : 루돌프 선배님!

루돌프 : 아, 부돌프. 저를 그냥 루돌프라 부르세요.

부돌프 : 네, 선배님. 아니 루돌프.

루돌프 : 슈틀렌 드실래요?

부돌프 :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요?

루돌프 : 구내식당으로 간 것 같네요.

오늘 구내식당 메뉴는 진저브레드 하우스랑 에그녹인데, 일단 앓을까요?

테이블 자리에 앉는 루돌프와 부돌프. 루돌프는 슈틀렌 한 조각을 잘라 부돌프 앞에 있는 그릇에 올려놓는다.

부돌프 : 힘들지 않아요? 다른 순록들은 전부 수컷이던데.

루돌프 : 힘들기도 하지만 그냥 제 할 일 하는 거죠. 부돌프는 어때요? 적응 되고 있나요?

부돌프 : 네. 루돌프 덕분이예요.

루돌프 : 한국지사랑 북극이랑 많이 다른가요?

부돌프 : 아, 북극은 할로윈 시즌까지만 근무했던 곳이고 그리 오래 일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북극에서 일했다고 하니 산타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대한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고.

품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는 부돌프.

부돌프 : 북극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보고 싶네요.

루돌프 : (사진을 들여다보며)어머! 아이도 있군요.

부돌프 : 네, 아직 한 살도 안 된 세끼예요.

제가 가장이다보니까 가족들을 북극에 남겨놓고 와야 했어요. 그건 그렇고, 루돌프 정말 대단하던데요. 올해의 우수사원에다가 처음 배송지원부에 지원할 때부터 들었어요. HR 엘프들이 루돌프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루돌프 : 직원교육 영상 봤겠네요. 아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전 아직 썰매를 끌 때 선두에 서 본 적도 없는 걸요.

부돌프 : 아부가 아니예요. 올해는 분명 루돌프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선두에 설 거예요.

부돌프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생각에 잠기는 루돌프. 부돌프는 웃으며 슈틀렌을 먹는다

S#6. 사무실 복도

초록색, 빨간색 색감이 눈에 띄는 알록달록한 파일을 들고 사무실 복도를 걷는 루돌프. 사무실 문 너머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Santa” 라고 적혀 있는 문패가 달린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 부돌프. 얼마나 웃은 건지 나오자마자 얼굴 근육을 이리 저리 움직인다.

루돌프 : 부돌프! 무슨 좋은 일 있나 봐요.

부돌프 : 네. 산타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산타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일정이 끝나면 북극에 있는 저희 가족 들을 하와이에 있는 별장에 초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거기다 정말 유쾌하기까지 하고요.

루돌프 : 절 가끔 꽃사슴이라고 부르지만 분명 좋은 분이긴 하죠. 전 먼저 사무실로 가볼게요.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 루돌프.

S#7. 화장실 내부

거울 앞에선 루돌프. 옷 매무새를 정리하다 한숨을 내쉰다.

루돌프 : (Narr.) 어쩌면... 올해도...

S#8. 배송지원부 사무실 내부

각자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순록들. 루돌프는 부돌프 책상 앞에 붙어 일을 설명해준다.

루돌프 :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이번 주에 업무지원부 엘프한테서 착한 아이, 나쁜 아이 리스트가 올라올 거예요. 북극에선 Naughty or Nice list였죠?

부돌프 : 네.

루돌프 : 지역마다 각자 이동 동선을 확인해야 하니까 지리적인 특징도 잘 알아야 돼요.

부돌프 : 제가 북극에서 왔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취약하네요.

루돌프 : 걱정 마요.

요샌 출생률이 많이 낮아져서 우리가 들려야 할 집들이 꽤 줄었어요.

그럴수록 더 누락되는 곳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갑자기 말에 끼어드는 순록 가

순록 가 : 요새 여자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루돌프 : 네?

순록 가 : 그렇잖아, 애를 안 낳고 돈 벌면서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 덕분에 우리 할 일은 줄고, 이리다가 배송지원부 인원감축 되겠어. 이 속도로 봐선 그리 먼 애긴 아냐.

루돌프 : 그 문제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대책이 경제적인 지원인데 그럼에도 출생률이 낮아지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요.

순록 가 :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뭐가 있는데.

루돌프 : 저출생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도 연관 있어요. 남자들이 육아, 가사 일을 덜 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통계도 있다고요. 경력 단절문제도 있고, 양육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도 원인이예요.

부돌프 : 맞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점이 노키즈 존이란 게 있다는 거였어요. 아프리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속담이 있는데 말이죠.

루돌프 : 우리 일자리가 그렇게 걱정되면 말이죠.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세요.

괜히 인간 여자를 탓하지 마시고요.

순록 가 : 흥! 기러기 아빠랑 결혼도 안 한 암컷 순록 말 듣고 싶지 않아.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는 순록 가, 부돌프는 둘 사이에서 눈치만 본다. 루돌프 자리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벨(E)

루돌프 : 잠시만.

부돌프 : 네.

S#9. 선물포장부 사무실 내부

트롤리를 끌고 다니며 포장된 선물을 옮기고 있는 선물포장부 엘프들. 루돌프와 부돌프는 알록달록한 리본과 포장지가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힘겹게 선물 상자들을 트롤리 위에 올린다.

루돌프 : 어째 이런 일이

부돌프 : 그러게요.

(Insert)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루돌프.

루돌프 : 네? 엘프가 과로로 쓰러져요?

부돌프 : 먼저 참고로 옮겨 놓을게요. 아! 아까 가 순록이랑 있던 일말인데요.

루돌프 : 네?

부돌프 : 그렇게 큰 소리 낼 수 있는 분 인줄 몰랐어요. 루돌프. 그리고 육아는 전 적으로 누군가 홀로 맡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아, 제가 할 말은 아니네요. 전 여기 있고 와이프는 독박육아 중이니까.

루돌프 : 그런 말 마세요.

부돌프 : 아무튼 저희 딸이 자랄 세상에 루돌프 같은 순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루돌프는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트롤리 하나를 끌고 사무실을 나서는 부돌프. 문이 닫히는 소리 (E) 루돌프는 잠깐이지만 미소를 보인다. 이내 트롤리를 끄는 루돌프는 선물포장부 내부에 있는 낡은 사무실 문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다. “선물포장부 마녀사슴”이라 적힌 문패가 흐릿하게 보인다.

S#10. 휴게실

작은 소파에 앉아 귀여운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는 엘프 가, 엘프 나

엘프 나 : 휴, 빨리 연말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엘프 가 : 너 그 얘기 들었어?

엘프 나 : 원데요?

엘프 가 : 내가 다른 부서 엘프들한테 들었는데, 루돌프 있잖아.

올해에도 선두로 안 세울 거래.

엘프 나 : 왜요?

엘프 가 : 산타클로스가 새로 들어온 부돌프 맘에 들어 하잖아. 선두는 부돌프가 거의 확정이래. 작년에 올해의 우수 직원 받을 때만 해도 루돌프를 끼고 살더니... 부돌프가 북극에서 왔다니까 본사 산타 얘기 하느냐고 정신없잖아. 그리고 부돌프 아직 한 살도 안 된 새끼 사슴 아빠래. 기러기 아빠라니까 엄청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

엘프 나 : 그건 저도 들었어요, 이번에 산타 가족들이랑 하와이도 간다던데... 루돌프가 가없네요.

엘프 가 : 그니까 루돌프만 안타깝게 됐지.

(Cut to) 휴게실 앞 복도에 멈춰서 있는 루돌프. 씩씩해 보이는 루돌프 얼굴 CU. 이내 트롤리를 끌고 간다. 트롤리를 끌며 복도를 걸어가는 루돌프의 뒷모습 FS.

S#11. 산타의 사무실 내부 (루돌프의 상상)

화려하게 꾸며놓은 거대한 트리가 놓여있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한 산타의 사무실 내부. 책상 뒤엔 큰 창문과 벽난로가 보인다. 책상 건너편 루돌프가 보인다. 산타가 앉아 있는 듯 보이는 커다란 의자 앞에 대고 말하는 루돌프.

루돌프 : 올해는 제가 꼭 선두에 서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부돌프씨 보다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한국의 물정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 CU. 편지를 열어보는 루돌프. 그러자 화면 새 하얗게 F.O

S#12. 탕비실

싱크대 위 컵에서 흘러 넘친 우유가 보인다.

루돌프 : 아!

항급히 행주를 가져오는 루돌프. 급하게 닦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진다. 행주를 꼭 쥐어보는 루돌프. 손을 부들부들 떤다.

S#13. 복도

“Santa”라고 적혀있는 문패가 달린 산타의 사무실 문 앞에 서성이는 루돌프. 노크를 하려다 주저한다. 루돌프는 고민하는 듯 고개를 잠깐 숙인다. 눈을 꼭 감은 채 이내 노크를 하는 루돌프. 산타의 사무실 문이 아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건 마녀사슴이다. 문패엔 선물포장부 마녀사슴이라 적혀있다. 자세히 보면 ‘ㅏ’ 획 하나가 문패에 적힌 글씨 폰트와 다르다.

S#14. 마녀사슴의 사무실 내부

책상을 가운데 두고 앉아있는 마녀사슴과 루돌프. 다른 회사내부와 달리 마녀사슴의 사무실엔 크리스마스 장식이 없다. 산타하우스 건물 내부 중 가장 삭막한 느낌이다. 마녀사슴은 선물포장부 엘프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루돌프처럼 사슴 분장을 하고 있다.

마녀사슴 :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으며)그런 일이 있었구나.

루돌프 : (잔을 손에 꼭 쥐 채)미녀 선배, 저 어떡하면 좋아요?

마녀사슴 : 고개 들어. 뭐 죄 지었니?

고개를 드는 루돌프. 울 것 같은 표정이다.

루돌프 : 이게 제 욕심인가요? 제가 이기적인가요? 처자식 딸린 가정이 출세가도를 걷는 걸 막는 건가요? 전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괜히 입 밖으로 꺼냈다가 산타 눈 밖에 나게 될 까봐 무서운걸요. 예전에도 이런 불만을 제기한 순록이 있었을까요? 산타한테 불만을 얘기하면 산타는 어떻게 대처하던가요?

마녀사슴 : 그 양반 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니?

루돌프 : 선배가 제 사수였을 때 산타가 제일 아끼는 순록이었잖아요.

S#15. 회상 (Flashback) 탕비실

탕비실 싱크대 앞에 서있는 엘프 복장을 입고 있지 않은 마녀사슴이 보인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조금 앳된 루돌프. 마녀사슴은 앞에 놓인 잔에 담긴 커피를 캔디 케인으로 휘젓는다.

루돌프 : 미녀선배. 정말 대단해요. 올해 썰매 끄는 거 선두라면서요.

다른 엘프들한테 다 들었어요.

마녀사슴 : 하여간 엘프들은 수다쟁이들이라니까. 말이 너무 많아.

루돌프 : 3년 연속 올해의 우수사원 선정에다가... 선배는 암컷 순록들의 동경의 대상이라고요.

마녀사슴 : 에이, 뭐 그 정도까지. 너무 띄워주지 마. 그래도 든든한 후배가 있으니 좋은데. 내가 앞장설 테니 넌 따라와.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상인지 벼랑 끝일지 이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 하지만 언젠가 정상에 서고 싶어.

최초로 선두에서 썰매를 이끈 암컷 순록이고 싶어.

S#16. 회상 (Flashback) 병원 입원실 내부 (낮)

창문을 통해 낙엽 잎이 떨어지는 게 보인다. 병상에 누워있는 마녀사슴. 부쩍 쇠약해진 얼굴을 하고 있다.

루돌프 : 미녀선배~

마녀사슴 : 왔니? 후후... (몸을 일으키며) 연말이 코앞인데 이게 무슨 꼴이니? 제일 바쁠 때.

그래도 잘 키운 후배가 있으니 걱정은 덜었다.

루돌프 : 저요?

마녀사슴 : 그럼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니?

마녀사슴은 루돌프의 손을 꼭 쥐다.

마녀사슴: 난 지금까지 내가 꿈을 좇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쫓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실수하지 마. 여직원 하나의 실수는 모든 여직원의 실수인 거 알지? 직장인은 실수했을 때 사과하면 되지만, 여직원은 아냐. “이러니까 여자랑 일 안해.”, “이러니까 여자한테 오퍼를 안 넣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루돌프 : 네.

마녀사슴 : 그리고 건강 챙겨.

S#17. 마녀사슴의 사무실 내부

마녀사슴 : 아프기 전까지 모든 엘프들이 나 보고 참 독하고 욕심 많다고 했었어. 밤샘 근무는 일상인데다가 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하지 당연히 애도 없지. 그리고 나서 산타하우스에 복귀해보니 가관이었지. 그렇게 날 아끼던 산타는 나보고 가정적인 회사 모토에 맞지 않자면서 말이야. 이 핑계, 저 핑계 늘어놓더니... 날 선물포장부로 보내 버렸고.

(Insert) 짐이 담긴 상자를 들고 있는 마녀사슴. '선물포장부 마녀사슴'이라 적힌 문패를 보더니 펜을 가져와 획을 하나 긋는다. '미'가 '마'로 바뀌었다.

마녀사슴 : 나 어릴 때부터 독하고 욕심 많다는 소리 들으면서 자랐다. 내가 집에서 첫째였거든. 거기다 딸인데 집안에서 아무도 날 대학에 보내려 하지 않는 거야. 나도 꿈이란 게 있는데 말이지. 비록은 이름은 미녀지만 마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 했어. 나는 마녀가 되어야겠다. 그런 소리 들을 바엔 마녀가 되어서 보란 듯이 성공해야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악을 쓰고 기를 써서 공부 했고 대학에 가서 겨우 산타하우스에 들어올 수 있었어.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넌 틀리지 않았어. 틀린 게 있다면 네가 아니라 세상이겠지. 그러니 뭐든지 너의 방식대로, 네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힘닿는 대로 도와줄 테니까.

루돌프 : 고마워요.

마녀사슴 : 내가 자식은 없지만 넌 내 딸 같아, 네가 날 참 닮았어.

루돌프 : 저도 마녀가 되겠습니다.

마녀사슴 : 좋은 건배사네.

머그잔을 부딪치는 루돌프와 마녀사슴. 화면 F.O

S#18. 배송지원부 사무실 내부 (밤)

캄캄한 사무실에 루돌프의 책상 위 조명만 불이 켜져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타자를 치고 있는 루돌프. 루돌프 책상 뒤로 보이는 화이트보드에 “Christmas eve D-1”이라고 적혀 있다. 옆에 붙어 있는 공고문에 “XXXX년 크리스마스 배송지원부 선두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부돌프” 라고 적혀 있다.

루돌프 : (Narr.)나의 방식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늘 그래왔듯 능력으로 날 증명하겠어.

업무를 마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에 적힌 “D-1”을 지우고 나가는 루돌프.

S#19. 복도 (밤)

승강기 앞에 서 있는 엘프 가.

엘프 가 : 지금 퇴근하세요?

루돌프 : 네. (자신의 붉은 코를 두드리며) 이제 정말 코앞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엘프 가 : 드디어 내일이 이브네요. 늘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는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루돌프 : 가 엘프도 지금 퇴근하잖아요. 가정도 있으면서... 더 대단해요.

엘프 가 : 호호, 그렇죠. 전 가족들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일이 좋아요. 전 산타하우스에서 살아있음을 느껴요. 루돌프도 그렇죠?

루돌프 : 네.

엘프 가 : 올해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데. 배송지원부 순록들 고생 좀 하겠네요.

승강기 알림 음(E) 승강기 문이 열린다.

엘프 가 : 그리고 너무 상심하지 마요.

S#20. 숲 속 (밤)

눈이 내리는 겨울 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숲 속이 보인다. 각자 머리에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물을 마시고 있는 배송지원부 순록 7마리들. 다들 지쳐 보이는 와중에 들고 있던 리스트를 확인하던 부돌프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S#21. 사무실 내부 (밤)

전화벨 소리(E) 불이 꺼진 사무실 F.S 내선 전화기 한 대가 빛을 내며 울리고 있다.

S#22. 회의실

S#3에서 나온 회의실이 연회장처럼 꾸며져 있다. 캐롤이 흘러나오고 산타와 배송지원부 순록들을 제외한 산타하우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홀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마녀사슴. 시큰둥한 표정으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잔에 담긴 샴페인을 한 잔 집으려 하자 울리는 마녀사슴의 전화. 진동음(E)

마녀사슴 : (한 쪽 귀를 막으며) 여보세요?

루돌프 : 미녀 선배! 혹시 술 마셨어요? (E)

마녀사슴 : 아니, 왜?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마녀사슴.

S#23. 복도

어두운 복도로 나온 마녀사슴의 표정이 어둡다.

마녀사슴 : 뭐? 부돌프는 뭐하고?

루돌프 : 아무래도 처음으로 선두에 서는 거라 긴장을 해서 그런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이미 다른 순록들한테 나머지 선물 동선을 다시 짜도록 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누락된 선물들은 아직 선물제작부에 남아있을 거예요. 창고에 예비 썰매가 있을 텐데, 썰매 혼자 끌 수 있겠어요? (E)

마녀사슴 : (확신에 찬 말투로)그럼! 나 올해의 우수사원 3년 연속 수상한 순록이잖아.

통화를 마치자 긴장한 듯 한숨을 한 번 내쉬는 마녀사슴. 이윽고 회의실로 뛰어 들어간다. 회의실 문 닫히는 소리(E)

마녀사슴 : 비상! 비상이에요! (E)

S#24. 숲 속 (밤)

눈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숲 한 가운데 눈보라를 해치며 뛰어오는 마녀사슴. 등엔 붉은색 벨벳에 금빛 줄로 묶여 있는 선물 꾸러미를 메고 이마에 고글을 끼고 있다.

루돌프 : (손을 흔들며 마녀사슴 쪽으로 뛰어온다) 마녀 선배! 여기예요!

마녀사슴 : (헉헉거리며 선물 꾸러미를 건넨다) 여기!

루돌프 : 고마워요!

마녀사슴에게 건네 받은 선물꾸러미를 들고 숲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루돌프. 홀로 남겨져 루돌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녀사슴.

마녀사슴 :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썰매를 끌어본 게 몇 년 만인지...

S#25. 복도 (오전)

이듬해 연말, 복도에 걸린 대형 게시판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미고 있는 엘프들. 아기자기한 눈사람 장식과 겨우살이 장식을 매달고 있다. 그 옆에 사내뉴스라고 적혀있는 신문 C.U 루돌프의 사진과 함께 크게 적혀있는 헤드라인과 기사가 보인다. “2년 연속 올해의 우수사원 수상! 배송지원부 루돌프”, “올해 국내 산타하우스 암컷 사슴 최초로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선두에 서게 되었다.”, “작년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크리스마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공을 인정받아...”

화면 F.O 되면서 종소리(E)